

# 美·유럽 등 해저케이블 수요 증가 전선업계, 실적개선 기대감 고조

전력인프라 투자 지속 증가  
2029년 30조 규모 시장 전망  
업계, 수주 확대 등 입지 강화

지난해 잇달아 수주 실적을 올린 전선업계가 올해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LS전선, 대한전선 등은 전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략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해저케이블 수요가 늘어난 점도 호실적의 요인으로 주목받는 대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케이블 수요는 지난 2022년 6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9년 2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규 전력 기반 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S전선이 분석한 미국 해저케이블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30년 현지 해저케이블 수요는 1160km에 달하는 반면 공급량은 750km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업계는 수요는 크지만 현지 공급망이 부족한 미국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

비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내 제조업과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전선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확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4년 10월 점증하는 기상 이변 위협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고 송전을 확대하기 위해 42개 주에 걸친 38개 프로젝트에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15억 달러(약 2조230억원)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선업계는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LS전선의 수주잔고는 지난 3분기 기준 5조7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12월 미국에서 총 44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을 계약했다. 네덜란드 구영전력회사 테네트가 입찰한 약 9037억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한전선 역시 수주 실적을 늘리고 있다. 대한전선의 수주잔고는 지난 3분기 기준 2조3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급증했다. 대한전선은 지난 10일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가 영국 동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kV(킬로볼트)급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1000억원 규모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힘든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도 따른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4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리 등 원자재는 미리 몇 달 치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폭스바겐 쿠페형 순수 전기 SUV ID.5.

## 폭스바겐, 2025년형 ID.4·ID.5 사전계약

국내 최초 ID.5 수입

폭스바겐코리아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4'와 브랜드 두 번째 전기차 'ID.5'의 2025년형 모델 사전계약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페형인 ID.5는 이번에 처음 국내에 수입되며 폭스바겐코리아가 2022년 선보인 ID.4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전기차 모델이다.

ID.5는 폭스바겐 전기 SUV의 우수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쿠페 스타일을 가미한 모델이다. 휠베이스가 2765mm에 달해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여유로운 편이다. 유선형의 쿠페 디자인으로 공기저항계수(Cd)를 0.26까지 낮췄다. 그러면서도 2열 좌석 헤드룸과 다리 공간을 확보해

거주성을 강화했고, 기본 549L, 시트 폴딩 시 1561L인 트렁크 용량을 구현했다.

ID.5는 1회 충전 시 복합 434km(도심 460km·고속 402km)의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 효율 또한 복합 5.0km/kWh(도심 5.3km/kWh·고속 4.6km/kWh)를 자랑한다.

2025년형으로 돌아온 ID.4는 향상된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됐다. ID.4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424km(도심 451km·고속 391km)를 인증받았으며,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효율은 복합 4.9km/kWh(도심 5.2km/kWh·고속 4.5km/kWh)다. ID.4와 ID.5 모두 최대 175kW급 급속충전을 지원해 약 2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2025년형 에어컨 신제품 출시

AI 에이전트 'LG 퓨른' 탑재

LG전자가 2025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사진)'과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부이 프로' 등 에어컨 신제품을 14일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AI가 사용자와 교감하며 최적의 냉방 환경과 청정 관리를 제공하는 ▲AI음성인식 ▲AI바람 ▲AI흡모니터링 ▲AI열교환기 세척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 'LG 퓨른'을 탑재한 신제품의 'AI음성인식'은 단순 음성 명령을 넘어 고객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제어한다.

레이더 센서를 통해 AI가 고객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온도를 학습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는 'AI바람' 기능도 적용했다.

AI를 활용한 에어컨 청정 관리 성능도 업그레이드했다. 'AI열교환기 세척'은 AI가 습도·온도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해 열교환기 오염도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세척한다. 제품을 분해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세척해 위생 관리가 한층 편리해졌다.

이밖에 고객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돌파

하이브리드 모델 등 글로벌 호평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순수 전기차(EV)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차(HEV)가 한국 자동차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HEV와 EV 등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70만7853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전 최대인 2023년 수출을 넘어선 친환경차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27만여대를 수출한 2020년과 비교하면 16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에서 32%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중 최다 수출 모델은 9만3547대가 수출된 현대차의 투싼 하이브리드였다. 이어 ▲코나 하이브리드 7만353대 ▲아이오닉5 6만8227대 순으로 수출했다. 기아 수출은 ▲니로 하이브리드 6만9545대 ▲EV 6만42488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3만8297대 순이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9만7200대에 달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6.1%에 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당하는 실적이다.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글로벌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빌트'가 진행한 비교평가에서 토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를 넘어섰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3 최고의 차 어워드'에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최고의 차 자리에 오른 바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698대, 수출액 5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대수, 수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출 200만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넘기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현대차·기아가 기록한 수출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록한 전체 수출액

6838억 달러 중 7.8%에 해당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액 708억 달러 중에는 75.4%에 달하는 규모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전체 수출 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UV 비중은 69.1% 수준으로 150만6287대가 수출됐다. 최다 수출 모델은 23만1069대를 기록한 현대차의 아반떼가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지역 다변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비중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55.6% ▲유럽 18.7% ▲아시아·태평양 9.1% ▲중동·아프리카 9.1% ▲중남미 5.2% 등으로 글로벌 전역에 수출되고 있다.

이로써 현대차·기아의 누적 수출 대수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5600만여대를 기록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

소재 선정·검증, 용접 기술 모두 확보

HD현대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 및 진공단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수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로이드선급(LR)·미국선급(ABS)·노르웨이선급(DNV)·한국선급(KR) 등 국제선급협회(IACS) 소속 4개 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에는 노르웨이선급으로부터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을 위한 용접 절차(WPS)'에 대

한 승인도 완료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의 소재 선정 및 검증, 용접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진공단열 기술의 독자 개발에도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새롭게 개발한 진공단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선박 운항 중에도 253°C의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수소 탱크의 단열 공간을 진공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다량의 액화수소를 손실 없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또한 탱크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해 기존 수개월이 소요되던 작업을 수일 만에 끝마칠 수 있다.

/차현정 기자